

글로벌 IT 매출 100대 기업의 특징과 추세 분석

김용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valuation@iitp.kr

A Study on the Trend Analysis of Revenue Top 100 Companies in the Global IT Industry

Kim Yong Gyun

IITP

요 약

본 논문은 글로벌 IT 산업 매출 100대 기업을 연구자 임의로 선정하고, 최근 20년 간 특징과 추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전 선행연구에서 시장에서 판단하는 가치인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100대 기업을 분석하였으나, 기업 실적의 대표적 지표인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변화 추세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매출액' 지표를 사용해 글로벌 100대 기업을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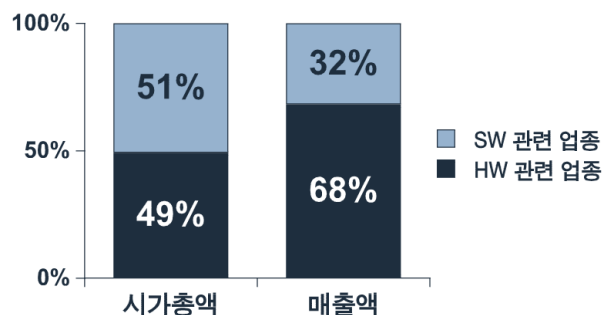
매출액 지표는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단순히 매출액이 크다고 하여 해당 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매출액 지표가 갖는 한계점도 분명 있지만, 가장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분명한 지표라는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이전 연구를 통해 시장의 가치 평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시가총액'을 이용해 글로벌 IT 산업의 변화 추세를 진단한 바 있다[1]. 매출액은 시가총액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글로벌 IT 산업을 진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IT 산업 100대 기업을 선정해, 최근 20년 간 글로벌 IT 산업의 변화 추세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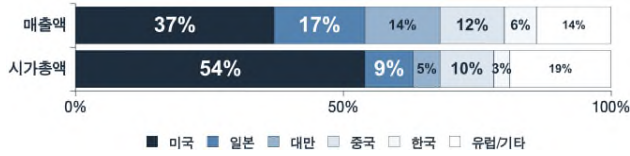
글로벌 IT 100대 기업을 선정하기에 앞서, IT 산업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 IT 산업을 임의로 정의하지는 않을 것이며, 매출액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가 사용한 S&P Capital IQ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류 체계를 활용해 정의와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2]. S&P Capital IQ 데이터베이스에서 'Information Technology', 'Consumer Electronics', 'Interactive Media and Services' 등 3개 산업을 IT 산업으로 임의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추출했으며, 추출된 기업 중에서 '유통업체(distributors)', '금융정보업체(financial information services)'는 IT 업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연구자 임의로 배제하였다. 또한 Amazon, eBay, Alibaba와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비록 통상적으로는 IT 업체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IT와는 관련이 없는 상품 매출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연구기간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간이며, 매출액은 회계연도(Fiscal Year) 기준으로 하였으며, 글로벌 기업들 간의 동일 비교를 위하여 매출액은 달러화로 통일하여 산출하였다.

시가총액과 매출액 지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업별 구성 비중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가총액 지표에서는 비록 매출액은 적을지라도 이익률과 성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소프트웨어, IT서비스, 인터넷)'의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매출액 지표의 경우,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의 비중은 2019년 기준 32%에 불과하다. 이는 산업 특성상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이 '하드웨어 관련 업종(반도체/장비, 전자부품, 가전, IT하드웨어, 통신장비)'과 비교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 관련 업종은 지역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수출이 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은 산업 특성상 대체로 자국 내수 시장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산업 구성 측면에서 최근 20년 간 큰 변화는 없었으며, 일본 기업들의 부진에 따라 전자부품 산업 비중이 최근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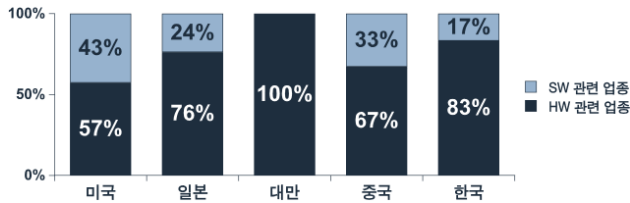


100대 기업 중 국가별 비중을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에서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결과도 흥미롭다. 2019년 기준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미국 기업 비중이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매출액 기준에서는 3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경우 비록 매출액이 큰 기업은 많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일본, 대만, 중국, 우리나라는 시가총액보다는 매출액 기준에서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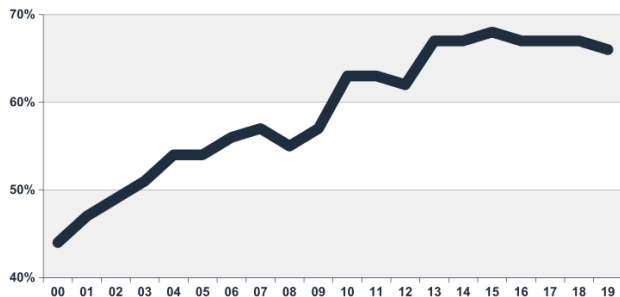
지난 20년 간 미국 기업은 현상 유지, 일본 기업은 하향세, 중국 기업은 상승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삼성SDS, 삼성SDI 등 대기업들이 순위에 포함되어 있다.



2019년 IT 매출 100대 기업 중에서, 국가별로 산업별 믹스의 차이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37개 기업 중에서 하드웨어 관련 업종의 비중은 57%이다. 하드웨어 관련 업종과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의 비중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대만,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관련 업종 비중이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즉, 산업 구조가 하드웨어 중심적이라는 뜻과 같다.



매출액 지표가 매력적인 점 중에 하나는 각 기업의 지역별 매출 분포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으로, 그 중에서 자국 내수시장 매출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국 내수시장 매출 비중이 낮다는 것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화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글로벌 IT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2000년 44%에서 2015년 68%까지 상승하였고, 2019년에는 66%로 소폭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IT 산업에 불어닥친 글로벌화로 판매/생산의 다국적화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해외 매출 비중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조거점으로서 탈중국 러시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리쇼어링 움직임으로 인해, 글로벌화는 주춤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본 연구에서도 2015년 이후 글로벌 IT 매출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매출액 지표를 이용하여 글로벌 IT 100대 기업을 최근 20년 간 선정하여 그 특징과 추세를 분석해 보았다. 매출액 지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적어 추세 분석에 불리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적

지 않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가장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나라도 이익 또는 가치 중심의 산업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는 점으로, 더 이상 일부 대기업에 의존하는 하드웨어 중심적 산업 구조로는 성장이 쉽지 않다는 점을 연구 결과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 [1] 김용균 "글로벌 IT 시가총액 변화 추세 분석,"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Computer Security and the Data Encryption Standard, pp. 585-586.
- [2] S&P Capital IQ Database (<http://www.spcapitaliq.com>).